

중국 티벳족(장족)복식의 지역적 분포와 불교복식과의 연관성

박선영* · 소황옥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석사과정* · 중앙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중국은 한민족(漢民族)을 주체 민족으로 하여, 55개 소수민족(少數民族)의 다민족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 소수민족들은 중국 역사에서 정책성 원인으로 산촌·도서·삼림·초원 등의 광활한 지역에 분포되어, 장기간의 폐쇄된 자연경제 상태로, 외래문명의 영향이 미칠 수 없어 민족 발전에는 불리하였으나, 민족복식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해 올수 있었던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티벳족의 복식과 그 복식이 불교와 관련해서 받은 영향과 다양한 지역에 분포하게된 경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티벳족이 신봉하고 있는 라마교는 티벳 문화와 풍속습관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라마교는 토번왕조를 건립한 송찬간포가 인도에서 전래된 불교와 上俗信仰(상속신앙)을 융합하여 만든 종교로 티벳족 인민의 일상생활과 정신생활의 지주가 되고 있다. 7세기초, 역사상 松贊干布(송찬간포)는 야룽(Yarlung)족의 지도자의 아들로 일부족연맹들을 통합하여 '티벳왕국'을 건립하였다. 당시 중국은 당태종의 치하에 있었으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티벳의 침공을 받게 되고 황실의 문성공주를 티벳에 출가시키기에 이른다. 그 후 강해진 티벳의 황제 가종(Gaozong : 650-683)은 당태종의 묘 앞에 '서해의 왕자'라고 명명한 송찬간포왕의 立像(입상)까지 세웠다. 문성공주에 이어서 710년, 당의 정종(定宗) 황제의 딸 진성공주가 티벳의 차이드족자인(Chide Zungzain)왕과 결혼을 하게 된다. 진성공주는 서방종교인 불교를 옹호하고 확장시키는데 공헌하였다.

9세기 중엽 티벳왕조가 내분에 의해 무너지면서 중원에서 당 왕조가 무너지고 오대의 분열과 송 왕조의 대두로 이어졌다. 티벳은 강력한 왕조의 대두 없이 거주민들과의 교류에 의해 송과 티벳간의 말과 기타 부산물과 비단류의 교역은 계속되었었다. 13세기 초의 티벳은 징기스칸과 칭해 지역에서

만나 동맹을 맹세하고, 1253년 몽케칸이 티벳을 멸하여 이후 400년간 계속되어온 티벳의 내분이 끝나고, 원에 복속된다.

이처럼 티벳은 몽고와 한족과의 관계를 이어오는데 복식역시 불교와 몽고의 복식의 영향을 받게 된다. A.D. 650년경 티벳에 소개된 인도의 불교는 100년가량 뒤에 라마교로 전환되었으며, 라마승들은 법의로 홍의를 착용하였고 결혼을 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14세기 내부의 혁신이 일어나고 혁신파들에 의해서 법의를 황의로 바뀌서 홍의 착용자들과 구분하였다.

1577년에 전 몽고내에 보편화된 황의 착용자들에 의해 주도된 티벳 라마교는 불교지류의 일파이기 때문에 법의를 착용하나 이들 몽고 라마교승들은 티벳적인 법복을 착용하나, 시대와 환경적 여러 여건에 따라 적절히 변용시킨 복제로 변용되어져 착용되어진다.

법의는 불법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착용하는 옷으로, Kasaya(袈裟)라 하며, 불교를 수행하는 중의 복장에 대한 통칭이 된다. 이러한 법의는 불교복식의 제도에 따라 재로나 착용법이 정해진다. 이러한 제도는 장족(藏族)의 일반복식에도 나타나게 된다. 어깨 한쪽을 노출시킨다거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색상과 복식재료등의 사용을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티벳불교의 전파동기와 그와관련된 복식과의 연관성을 보았다. 하지만 장족(藏族)이 현재 서장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지만 다소 내몽고지역에도 장족의 복식이 남아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